

JDC 특특튀는 교육 특강 연극인 변중수씨 제주중앙고 후배들과 만남

“그게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찾아라”

“80년대 대학 연극동아리서 ‘잘했다’ 한마디에 큰 용기”

제대로 연극 배우고 싶어 34살때 연극영화과 입학

‘인생은 아름다워’ 등 드라마 제주어 연기 지도·감수 역할

‘파친코’, ‘인생은 아름다워’, ‘멘도롱 도롱’... 화제를 모았던 이들 드라마에 그가 있었다. 제주 연극인 변중수(극단 문화놀이터 도체비 대표)씨다. 연극 무대를 누렸던 경험을 살려 배우들의 제주어 연기를 돕거나 제주어 감수를 맡았고 때론 단역으로 출연했다.



제주 연극인 변중수씨가 지난 2일 모교인 제주중앙고를 찾아 후배들에게 ‘먹들도 돌림시민 궁기 난다’란 제목으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이상국기자

1985년 대학에 입학한 이후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며 비로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길로 줄곧 ‘연기전문가’로 살고 있는 그가 후배들 앞에 섰다. 지난 2일 제주중앙고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특튀는 교육특강’을 통해서다. 변 대표는 제주중앙고 31회 졸업생이다. 한라일보 주관으로 마련된 25회째 교육특강에서 그는 2학년 학생 240여 명을 대상으로 학창 시절부터 현재까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장면들을 풀어냈다. ‘먹들도 돌림시민 궁기 난다’ (‘차들도 뚫다보면

궁명이 난다’는 제주 방언)는 강연 제목에서 짐작하듯, 외길을 걷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기회가 찾아왔던 날들의 기억이 강연장에 펼쳐졌다. “저에겐 3월등이 있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키도 남들보다 작아서. 그러다 대학 동아리에서 연극을 하면서 난생 처음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죠.” 선배들의 “잘했다”는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제대로 연극을 배우 보자며 34살에 연극영화과에 입학

했고, 38살 때는 4년제 연극영화과에 편입해 졸업했다. 50이 넘어서는 석사 학위를 땀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참여하며 제주어 연기 지도 전문가로 알려졌다는 변 대표는 마침 강연 전날에도 그를 눈여겨본 ‘파친코 2’ 제작진에서 오디션을 제안받은 소식을 들려줬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품고 가는 그는 이날 모교 재학생들에게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험에서 우리

난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마음 연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강연의 막바지로 청중들을 이끈 변 대표는 ‘낙상매’ 이야기를 꺼냈다. “매들은 새끼들이 날아야 할 때 일 부러 먹이를 등지 옆으로 떨어뜨린다고 해요. 먹이를 먹느라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살아오르는 놈이 있어요. 그걸 낙상매라고 합니다.” 때로는 고통이나 결핍이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끝으로 그는 후배들과의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전선희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교통량 늘었다

제주시 올해 전년보다 4.8% ↑... 중산간 증가율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 19 회복세와 맞물려 제주시 도로교통량도 늘어났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주시 도로 교통량 조사에서 제주시 지역 전체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4.8%, 4만432대가 늘어난 87만7030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0일 제

주시 14개 읍면동 83개 노선 114개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조사원이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를 시간별, 차종별, 방향별 등으로 조사했다. 각 노선별 교통량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16도로, 평화로, 중산간 도로 등 구 국도 5개 노선의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51만

4466대가 통행해 가장 큰 증감률을 나타냈다. 또 시도 노선의 경우 통행량이 13만4015대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0.7% 감소했다.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도로로는 중산간도로 도로교통공단 인근으로 하루 동안 총 8만4669대가 지나며 35.9% 통행량이 증가했다. 뒤를 이어 일주도로 삼양검문소, 평화로 관광대, 평화로 면허시험장 등의 순으로 교통량이 많았다. 반면 통행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시도 68호선인 구좌읍 하도리 별방길로 하루 통행량이 247대에 불과

했다. 제주시는 올해 교통량이 4.8% 증가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른 관광객 수 회복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제주지역 인구는 지난해보다 2207명 늘어난 69만 9854명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보다 3만6609대 늘어난 68만 2576대로 집계됐다. 또 관광객은 2019년 1006만여명에서 2020년 665만명, 2021년 736만명 등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938만명 등으로 회복세에 있다. 김도영기자

제주 코로나19 연일 300명대 확진

최근 일주일 하루평균 355명 4일 기준 격리 환자 2287명

제주에서 연일 300명대를 웃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지역에선 총 248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 간 확진자 현황을 일별로 보면 지난달 27일 219명, 28일 335명에 이어 29일 491명으로 500명에 육박했다. 이어 30일 377명, 이달 1일 355명, 2일 348명, 3일 359명 등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55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주 대비 137명 증가한 수치다. 이날 오후 5시까지 2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보내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40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2287명이며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269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없으며 위중증 환자는 1명, 치명률은 0.06%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확진자가 확산추세를 보이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는 확진자 증가 원인으로 낮은 기온에 따른 실내 접촉 증가, 수능 수험생 면접 등 이동량 증가, 월드컵 단체 응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되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현재 205병상을 430병상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올 겨울 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우려

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

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독감 유행도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올해 48주(11월 20~26일)에 외래환자 1000명당 8.3명이 발생했다. 44~48주 기간 동안 평균 7.9명이 발생해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적극 참여와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9월 21일부터), 임신부(10월 5일부터)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10월 17일부터)에 이어 10월 20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8000여명)을 포함한 약 26만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1월 11일부터 기존의 고위험군(8000여명)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외에도 노인·장애인 주간보호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등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꿈의 의자

당신이 채워주신 자리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합니다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 콘서트

A-Hope

출연

연주

공연날짜 2022년 12월 10일(토) 저녁 7시
공연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
티켓가격 일반 55,000원 / 학생10%할인(49,500원) / 수험생할인30%(38,500원) / (단체할인 30명 이상)
후원 내용 제주도 내 환아들의 수술비 일부, 치료비, 교통비 (제주 환아들은 종종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항공요금 외 많은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치료를 제때 못 받아 병세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치료, 불우 환우의 다양한 교육비 지원 등

주최·주관 소리굽쇠 |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후원 교보생명 제주 지원단 | 제주 대응항토리조트 | (주)케이드 | 그래픽그래피 | 제주 KCTV | 강남성모안과의원

인터넷 예매 인터파크 티켓예매 전화 예매 및 문의 소리굽쇠 0502-1919-0501 |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064-752-3300